

觀光需要 등 複合機能위해

集中投資 더욱切實

李承鉉 <南和土建株式會社 常務理事>

흔

히들 빠른 세월을 일컬어 일촌광음(一寸光陰)이라고 한다.

연초의 첫 출발의 자세는 제법 다짐도 해보고 시작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첫 단추를 잘 끼워 보려고도 하였으며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해야만 승리의 한 해, 영광, 보람, 행복의 한 해가 될까 하고 지해도 모아 보았다.

그러나 마지막 달력을 남겨놓은 요즈음 우리는 얼마나 급박하고 급변하는 최첨단 산업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동구에서 불어오는 개방화와 민주화의 바람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이데올로기의 벽도 허물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도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고, 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고 임금과 수출 부진, 과소비 풍조의 만연과 비리·부정 사치성과 향락 산업의 번창, 기업의 시설투자 기피, 천정부지의 지가와 물가상승, 단시간에 해결하려는 주택 정책으로 인한 건자재 품귀 및 가격 폭등,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물 밑듯이 밀려오는 불요불급한 의

서 금후 어항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어항의 사회간접자본 내지 공공재적 성격은 개인 또는 상업자본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투자효과는 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엄청난 관리비용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투자를 기피할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이들 부문에 대한 시설 및 관리는 국가가 직접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단계를 볼 때 굳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사전대비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적인 생산수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어항 등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육상의 도로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로가 부족함으로써 수출산업, 나아가서 국가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점을 통해서도 어항에 대한 투자증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다음,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어항개발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비단 동

협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생산성 향상과 함께 생산된 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어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선의 현대화 내지 대형화와 어업경비의 절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기지로서 어항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 및 생산된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를

재 사치품들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갈수록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사회정의와 도덕성의 실추 등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치관마저 전도된 상태에 있다.

한때나마 승천하는 용으로 비유되던 우리 나라가 이제는 지렁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외지인들의 비웃음 거리가 되고 말았으며 5천불 소득에 2만불의 사치가 만연되고 있으며, 과도한 생산성을 뒤 따르지 못할 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는 파행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 어항인들 만이라도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여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고 선진조국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똑

바로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약을 이룩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 어항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 정부차원의 과감한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하겠으나 현실에 맞는 어항법의 점진적 개정과 미래지향적인 어항 시설 즉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수산 입국이라는 말과 같이 원대하고 무궁무진한 수산자원의 활용화만이 선진조국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항관계 담당자 측면에서는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선 어민들의 안정적 생계 보장과 유사시 대피항으로서의 기능과 생산기반 시설인 어항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거시적 측면에서 기초조사 및 용역설계 시공까지를 구상하고 어떠한 태풍이 내습되더라도 안전하고 영구적인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안전한 단면 설정과 여유있는 공간 확보 및 육지와 도서지방간의 변천되는 수산업 및 관광 교통수단에 따라 복합어항으로서의 이용도 측면을 종합 검토해 집중투자 방식 채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심도있게 계획된 어항 건설 시공 측면에서는 과거와 현재까지의 재래식 장비 및 관습과 습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대화된 장비 및 기능공 양성과 신공법 연구 및 품질 개선으로 최고의 안전성과 양질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해 재생산을 위한 비능률 제거와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는 지역수산업의 발전에 대한 요구를 증가 시킬 것이고 이것은 다시 지역어항에 대한 수요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즉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관점에 입각한 어항정책은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와 심각한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전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역수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어항에 대한 요구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어항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어항에 대해서는 생산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크게 늘려 나가되 추진과정에서 지역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제1종 및 제3종 어항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제2종 어항 및 소규모어항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2종 어항 및 소규모 어항은 대피기능도 중요하겠으나 지역수산업 발전과 연계된 기능시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후의 어항 시설은 전체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어획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해 유통, 가공기지로서의 기능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어항에 대해서는 시설초기부터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 시설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기존 어항의 경우 이들 부문에 대한 과감한 보완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